

# 국힘 불참...8월 국회 첫 날부터 파행

### 국방위·행안위 1시간도 못 열어

### 증인 출석 등 놓고 여야 신경전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했다.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 또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및 폭우 수해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이날 여당의 불참 속에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는 한기호 위원장을 제외한 국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 불참을 규탄하며 군 관계자들의 출석을 전제할 오후 전체 회의를 요구했으나, 한 위원장이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개의 후 산회 전까지 40여분 간 이어진 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으로 진행됐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두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의 직권남용 관련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하는 게 우리 의무"라며 "국민의힘에 이번 주 중 최대한 빨리 (전체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신원식 (여당) 간사는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회의 소집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오랜 전통인 여야 합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은 반(反)국회 세력의 폭거이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반 협치를 자랑삼으며 국방위를 단독 소집한 것은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몰다기용 썬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정치공세를 위한 가짜 국방위 소집을 철회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기다리는 게 도리"라고 촉구했다.

또한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민주당 소속)의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행안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등 야당만

참석한 채 26분 만에 끝났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김지사에 게 있다면서 최근 김지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위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했다.

출석 예정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나오지 않았다.

홀로 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수해와 '물지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 장관과 충북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전북지사의 출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나"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7월에 하려 했던 현안질의를 국민의힘이 역지를 쓰며 충북지사 출석은 안 된다고 해서 오늘도 미뤄진 것이다. 합의된 일정"이라며 "여당이 갑자기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안위 전체회의가 임시회 첫날부터 파행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17일과 18일로 예정된 법안소위도 파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낙연 "민주 혁신, 길 잃은 것 같아 안타깝다"

### 2박3일 일정 광주·전남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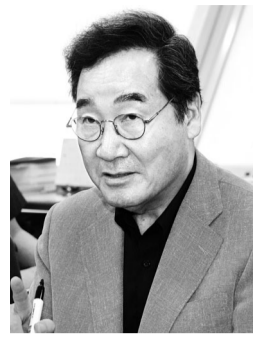
### "당분간 정치적 행보 자제할 것"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민주당 혁신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인데, 그 쪽으로 가지 못하고 길을 잃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은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혁신의 핵심은 민주당의 눈 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 높이에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김은경 혁신위도 가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다"면서 "혁신위가 도덕적 권위를 잃은 것은 뼈아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주당다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당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며 "도덕성과 유능함을 가진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이 전 대표는 향후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국가적으로 어려운데 국민들도 지쳐있고,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될 행사나 행보 등은 자제할 것이다"면서 "그 대안으로 대학 강의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처한 대외정책과 관련, 학생들과



토론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對) 중국, 대러시아 정책은 안보인데 지금처럼 해선 안된다"고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적한 뒤 "북한, 주변 4강(淸)과 상대적으로 편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 누구와도 적대적이지 않았던 DJ시대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돌며 정치 행보를 펼친다.

이날 광주에서 여성·청년·상인과 전직 광주·전남 농업 조합장 등을 만나 지역 민심을 들었다.

17일 오전에는 광주에서 종교계와 학계 인사들을 만난 뒤 오후에는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초청으로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지지자들을 만나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14주기인 18일에는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를 방문해 신안군이 주최하는 추도식에 참석하고 하의도 주민들과 대화한다. 같은 날 저녁에는 목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전남도 실감장들과 만찬을 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16일 소통관에서 행안위 전체회의의 파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민형배 의원 민주 광산을 지역위원장 복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6일 광주 광산을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 의원은 이날 당무위원회 승인 과정을 거쳐 광산을 지역위원장에 공식 재선임했다. 이번 광산을 지역위원장 선임에는 민 의원이 단수 응모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과정에서 탈당하면서 지역위원장에서 자동 사임된 지 1년 4개월만에 다시 복귀한 것이다.



민 의원의 탈당으로 공식이 됐던 광산을 지역위원장은 1년3개월여 동안 송남수(수석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민 의원은 "더 큰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면서 "광산주민과 광주주민의 뜻을 받들어 내년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김경만 의원 '스쿨존 후면 CCTV' 법안 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가능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은 16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배달산업의 발전으로 스쿨존을 오가는 이륜차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스쿨존 내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및 난폭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해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스쿨존 내 교통단속용 장비는 대부분 전면 촬영만 가능, 자동차와 달리 후면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차의 신호위반·과속·역주행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없다. 김경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장비의 한계로 단속에서 벗어났던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스쿨존 내 교통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박광온 "정부 5대 무책임, '1특검 4국조'로 바로 잡을 것"

### 재정 지출 증가율 6%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6일 "양평-서울 고속도로 게이트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정권의 정당성과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 '4국조 1특검'으로 강하게 책임을 묻고 확실하게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속도로 게이트, 무법적 방송장악, 오송참사,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철

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하는 4대 국조를 반드시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채수병(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뒷선 개입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라며 "특검을 통해 권력의 개입과 은폐를 낫잡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정부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 불리하다고 묵혀 두는 것은 스스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대책 없이 방관만 한다면 모든 경제주체가 더욱 움츠러들면서 투자와 소비는 더 떨어지고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저성장 장기 침체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은 나라 곳곳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라면서 "정부가 재정 지출 증가율 3% 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다. 증가율 6%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초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익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지점 062)528-2640~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지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비탈지점 062)381-1971~2	빛고을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빛고을지점 062)531-1213~5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